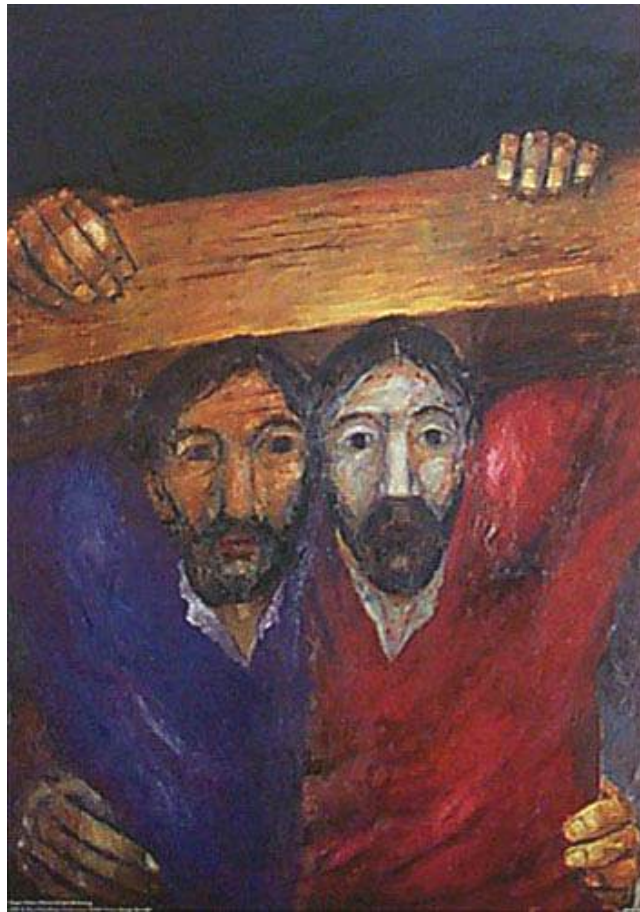


십자가의 길 기도



십자가의 길 제5처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짐
지거 죄더

대한성공회 동대문교회

〈십자가의 길〉 안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뒤따르며 주님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신앙 훈련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신앙의 자유를 얻은 뒤, 예루살렘 순례를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며 시작했고, 그 처소에 기도처와 성당을 만들면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4처로 확장됐는데, 8개 처는 복음서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3, 4, 6, 7, 9, 13 처는 복음서에서 추론하거나 주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전승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성주간에 신자들은 성당 외부 혹은 내부에 십사처를 마련하여, 이 천년 전 주님께서 걸으셨던 수난과 아픔의 길을 함께하며, 부활의 새 생명을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의 고통 뿐만 아니라, 세계가 겪는 고통과 고통 받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COVID-19 전염증으로 세계 전체가 큰 두려움과 고통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세상의 고통을 마음에 담고, 성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목요일 성찬제정예식 후에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1 처 예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다.



시작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쁨에 앞서 수난을 허락하시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생명과 평화의 길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말씀(요한 19:1-5)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서서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 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자, 이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파의 집에서 모독과 누명을 받으시고, 또 헤로데 왕궁에서 조롱과 추행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의 재판정에 묵묵히 서계십니다. 주님의 등에는 채찍으로 맞으신 상처가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함이요, 인간이 하느님을 심판함이요, 불의가 정의를 심판함이요, 사랑이 미움으로 보답되는 모순과 치욕의 순간입니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당신께서 사형선고 받으심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피하고 싶은 선택의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2 차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성경말씀(요한 19:16-17)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라는 말은 해골산이란 뜻
이다.*

말씀 묵상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이파의 집에서 모독과 누명을 받으시고, 또 헤로데 왕궁에서 조롱과 추행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의 재판정에 묵묵히 서 계십니다. 주님의 등에는 채찍으로 맞으신 상처가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함이요, 인간이 하느님을 심판함이요, 불의가 정의를 심판함이요, 사랑이 미움으로 보답되는 모순과 치욕의 순간입니다.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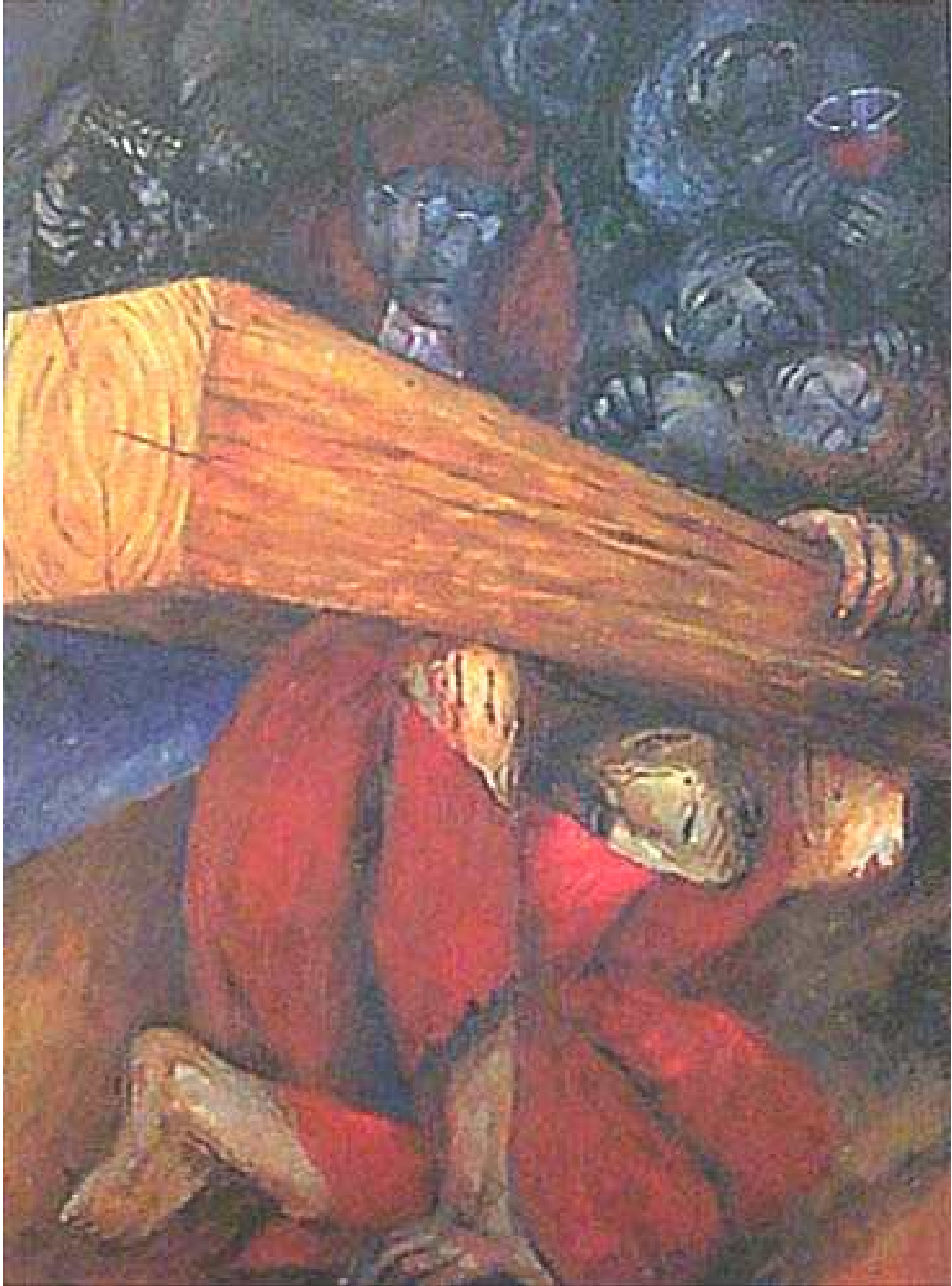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 십자가 지심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배신감으로 분노에 사로잡힐 때,
자비로운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3 처 예수께서 처음으로 넘어지시다



성경말씀(마르 8:31, 34-35)

그 때에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말씀 묵상

당신 뜻 하나로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느님께서 나무기둥 하나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인간이 되셨다. 강함을 자랑하는 하느님이 아니시다. 거친 고향소리와 조롱의 함성에 덮여 지금 여기 나의 발밑에서 넘어지신다. 너 만일 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너 역시 불평 없이 너의 인간적 나약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 길에서
첫 번째 넘어지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힘겨움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
다시 일어서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4 처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시다.



성경말씀(애가 2:13, 룿기 1:20-21상)

수도 예루살렘아, 너에게 무슨 말을 더 하랴. 짓밟힌 일 없던 수도 시
온아, 지금의 너 같은 처참한 꼴이 일찍이 없었는데, 나 너를 어디다
비겨 위로해 주랴. 네 상처가 바다처럼 벌어졌거늘, 어느 누가 다스려줄
것인가.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
지들 말아요. 사따이 신께서 나에게 쓰라림을 가득 안겨주셨다오. 그러
니 나를 마라라고나 불러주어요.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었건만,
야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오.

말씀 묵상

어머니께서는 내가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신다. 발로 채이고 짐승처럼
몰리는 것을 보신다. 어머니는 나의 모든 아픔을 헤아리신다. 어머니의
마음은 시므온의 예언대로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프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 항의도 불평도 앓으시고 그럴 생각조차도 안 해 보신다. 어머니는
침묵뿐이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시가 아닌가? 지금
어머니는 나의 순교를 나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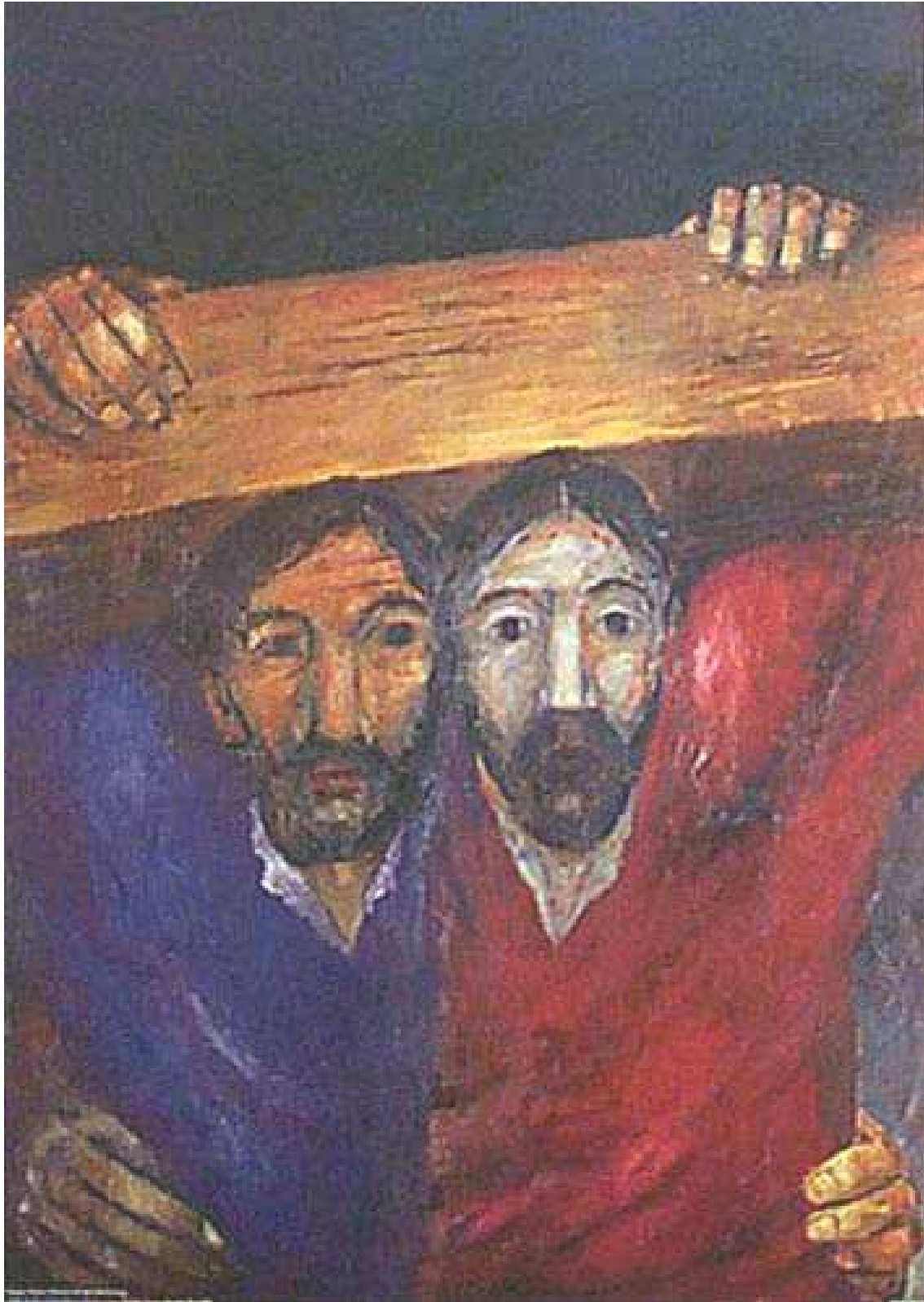
기 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 어머니를 만나심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외로움으로 사무칠 때,
언제나 손을 내미시는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5 처 예수께서 시몬의 도움을 받으시다.



성경말씀(루가 23:26, 이사 53:4-5)

그들은 예수를 끌고 나가다가 시골에서 성안으로 들어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앓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말씀 묵상

내 힘이 다했다. 더 이상 십자가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휘둘러 보았다.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 그러나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좋은 때에는 친구가 많다. 그러나 나쁠 때에는 재빨리 멀어진다. 제자들은 어디를 갔는가? 베드로마저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병사들이 시몬에게 나를 돕게 했다. 내게 너의 힘을 달라. 군중의 시끄러움 속에 묻혀 숨어 있지 말아라. 네가 다른 사람의 등에 얹힌 짐을 덜어 줄 때마다 나를 짓누르는 저 십자가의 끔찍한 무게를 덜어 주는 것이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 길을 도운

키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저 앓고 달려 나간 그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6 처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리다.



성경말씀(애가 3:48-51)

*이 백성의 수도가 멸망하는 것을 보니 내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합니다.
견잡을 길 없이 쏟아지는 눈물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야훼께서 하늘에
서 굽어보실 때까지 흐를 것입니다. 나의 성읍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
소리에 눈알이 쓰라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

너는 내 피투성이의 얼굴을 닦아 줄 만큼 용감해 질 수 있겠느냐? 내
얼굴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냐? 가정에서 눈물이 고일 때마다, 일터에
서 긴장이 생길 때, 운동장에서, 빈민가에서, 법정에서, 병원에서, 감옥에
서... 고통이 존재하는 그 어디에나 바로 거기에 내 얼굴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내 피와 눈물을 닦아 줄 너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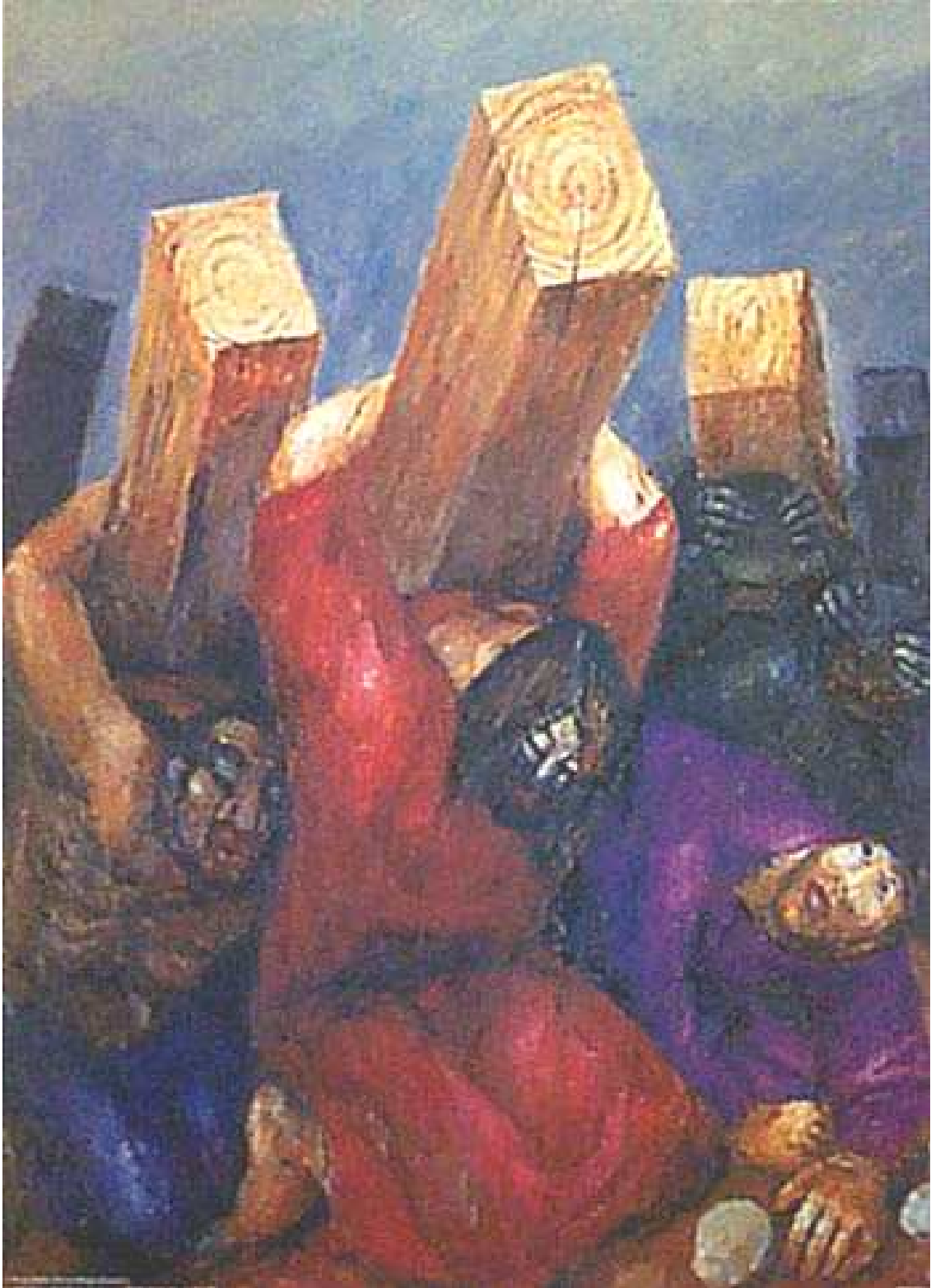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얼굴을 닦아드린 베로니카를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과 교회를 조롱할 때,
주님의 얼굴을 닦은 그녀를 기억하게 하소서.

제 7 처 예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시다.



성경말씀(이사 53:10-12)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 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여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말씀 묵상

내가 두 번째 넘어짐은 너희들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서는 것이다.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듯하고 계속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라.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 무거운 짐 진 자여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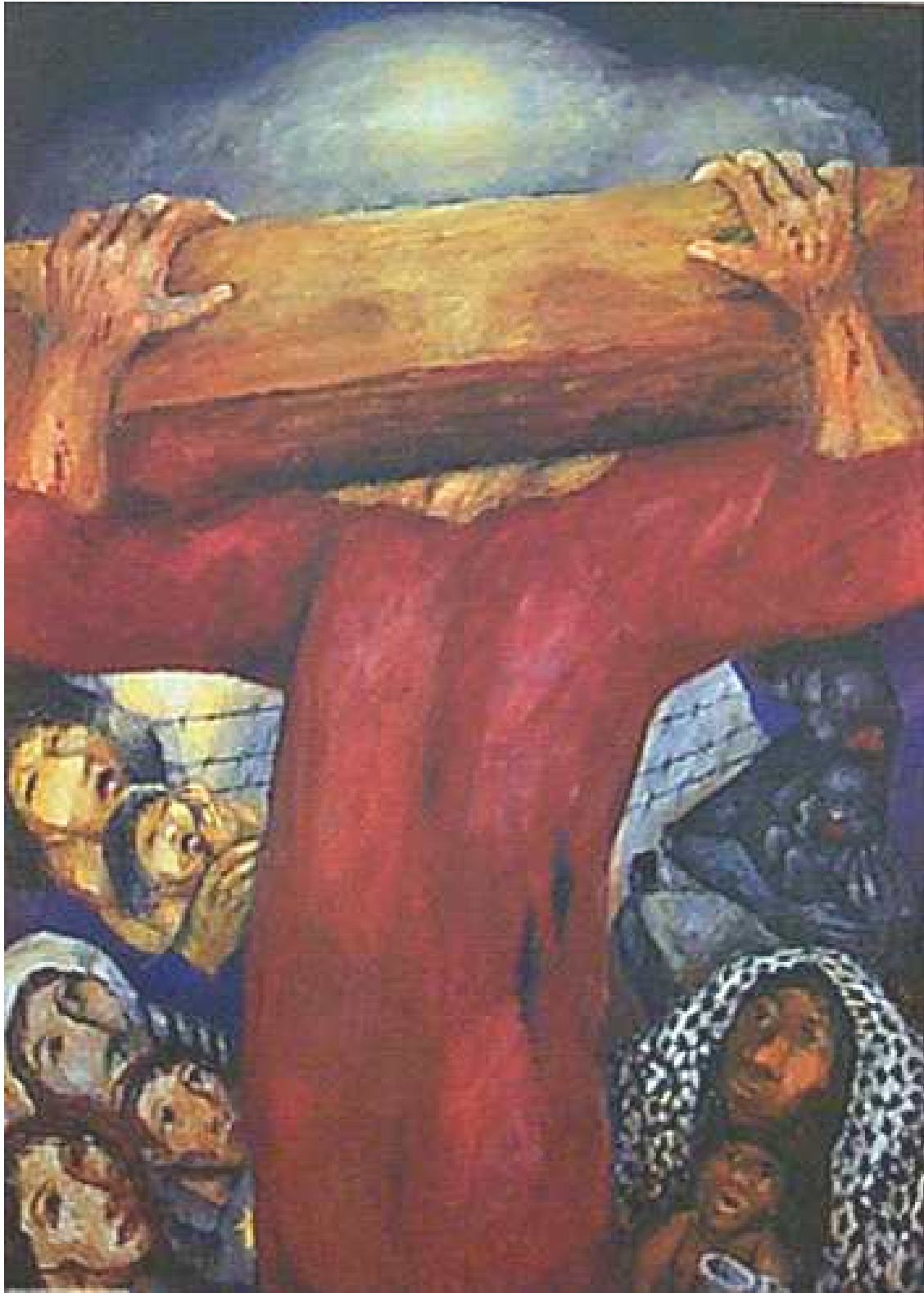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 길에서
두 번째 넘어지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움의 때,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8 처 예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시다.



성경말씀(루가 23:27-31)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는데 그 중에는 예수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하고 젖을 빨려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 하고 말할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 때 사람들은 산을 보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할 것이며, 언덕을 보고 '우리를 가려달라.' 할 것이다.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말씀 묵상

내가 몇 번이나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기를 고대했던가? 그러나 그들은 마다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여인들이 나를 위해 운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들 때문에, 그들이 장차 겪게 될 그들의 설움 때문에 슬퍼한다. 나는 나를 위로하려는 이들을 위로한다. 참되게 울 줄 알아야 한다.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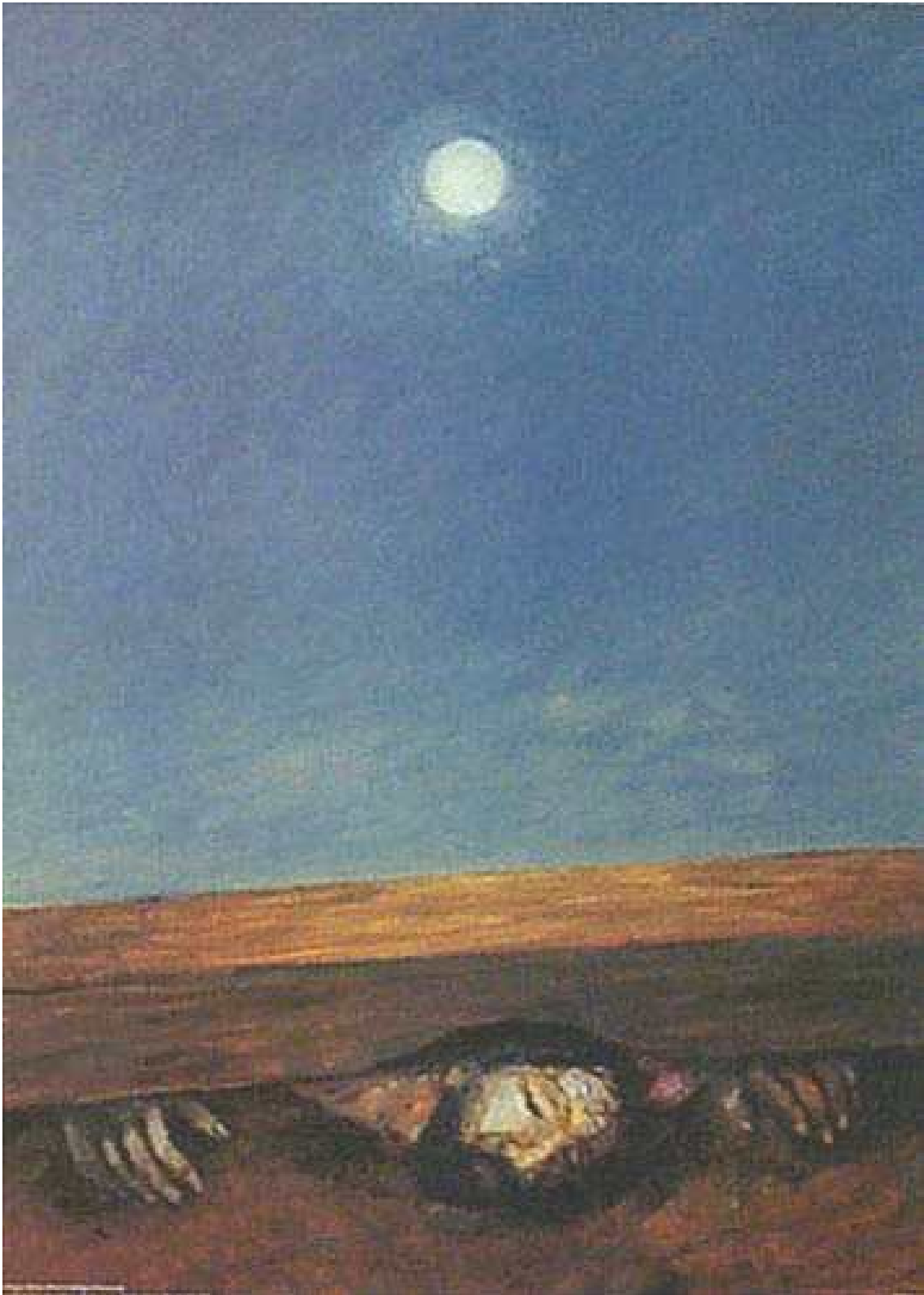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심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이웃을 만날 때, 고통 속에서도
위로자로 나타나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9 처 예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시다.



성경말씀(이사 29:4, 53:7)

너는 쓰러져 흙바닥에서 소리를 내리라. 네 말소리는 가늘게 먼지 속에서 들려오리라. 네 소리는 땅에서 나는 훈백의 소리 같겠고, 웅얼거리는 네 소리는 먼지 속에서 들려오리라.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말씀 묵상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나는 그만 갈보리 언덕에 누워 버린다. 몸을 꿈쩍할 수가 없다. 아무리 때리고 발로 차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하지만 내 의지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의지는 너의 것이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비록 네 몸이 으스러지게 되더라도, 지상의 어떤 힘도, 지옥의 어떤 힘도 너의 의지를 너에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다. 너의 의지는 너의 것이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 길에서
세 번째 넘어지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두려움으로 떨려올 때,
어둠을 이기는 빛이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10 처 예수께서 옷벗김 당하시다.



성경말씀(요한 19:23-25)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단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술 없이 통으로 찢아 있었으므로 그들은 의논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겹옷을 나누어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말씀 묵상

보라! 가장 가난하게 살아 온 왕의 모습을, 내 창조물들 앞에 나는 발가벗고 서 있다. 내 침상인 십자가, 이것마저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가 그처럼 부유했더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너 역시 모든 것을 갖고 싶거든 네 양식과 네 옷과 네 생명마저도 애써 구하려 들지 말아라.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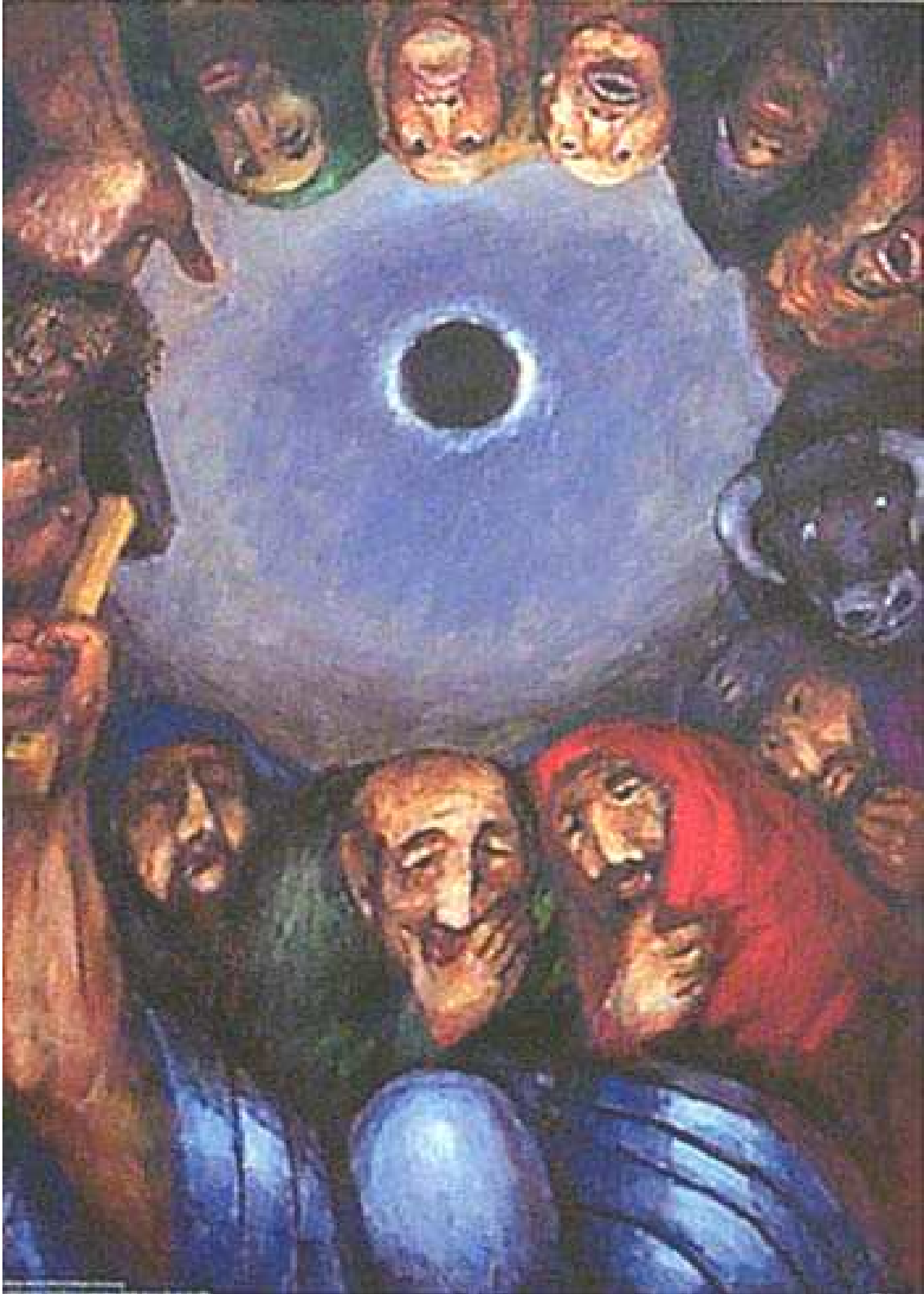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옷 벗김을 당하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조롱과 비난으로 고통 받을 때,
나의 방패 되시는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11 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성경말씀(루가 23:33, 창세 22:6-8)

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고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형에 처하여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놓았다.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
겨 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
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물
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
람은 함께 길을 떠나,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말씀 묵상

너는 십자가 형벌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형 집행인들
이 팔을 잡아 당겨서 손과 팔목을 나무에 붙들어 매고 못을 눌러 살을
뚫는다. 그리고 망치를 두 세 번 세게 내리쳐 못을 박는다. 그러면 머리
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 고통스럽다. 그들은 다른 팔을 잡는다. 그러면
또 다시 고통이 폭발한다. 그런 다음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나무에 딱
달게 하고서 또 한번 망치를 휘둘러 내리친다. 그리고 땅위에 십자가를
세운다. 내 몸은 세 개의 못에 걸려 있다.

기 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나의 구원을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12 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다.



성경말씀(루가 23:46-47)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죄없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말씀 묵상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목마르다.’ , ‘이제 다 이루어졌다.’ ,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말 한 마디 하려면 팔뚝과 발에 힘을 주어 온 몸을 세워야 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의 새 파도가 몰려 와 나를 삼킨다. 이제 견딜 만큼 견디고 나의 인간성은 모두 비워 냈을 때, 나는 이승의 목숨을 보낸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몸서리칠 때,
부활을 약속하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13 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리어지다.



성경말씀(루가 23:46-47)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

희생은 이루어졌다. 그렇다 나의 예배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너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 또한 네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이 네게 닥쳐 올 것이다. 네가 슬픔에 잠길 때에 나의 희생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라. “말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느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봉헌할 때, 영원한 생명이 움터 나오는 것이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린
당신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지독한 실패로 주저앉고 싶을 때,
낮아지심으로
영광 받으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14 처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시다.



성경말씀(루가 23:46-47)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었고 하느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인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 물어보았다. 그리고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시체를 내려다가 미리 사가지고 온 고운 베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를 모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씀 묵상

그리하여 내 이승의 삶은 끝났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사람으로서의 나의 일은 끝났다. 내 교회 안에서, 내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할 나의 일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날이면 날마다 이 시간부터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희생물이 되어라.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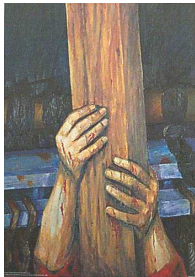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여,
무덤에 묻히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잠시 묵상합니다)

안식과 평온을 갈구할 때,
사명을 완수하신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한성공회
동대문교회